

신라 쌍탑가람의 출현과 신앙적 배경*

한 정 호**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1. 사천왕사 창건의 교리적 典 |
| II. 쌍탑가람의 출현에 대한 기존의 견해 | 據
2. 금광명경과 쌍탑가람 |
| III. 신라 쌍탑가람의 始原 再考 | V. 쌍탑가람 출현기 불신관의 변 |
| IV. 사천왕사의 창건과 금광명경 | 화가 반영된 불교미술 |
| | VI. 맺음말 |

개 요

쌍탑가람의 출현은 신라 불교건축 역사상 가장 특징적인 변화이다. 지금까지 신라 쌍탑가람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법화경』의 「견보탑품」 근거로 해석해 왔지만 반세기가 지나도록 이를 확증할만한 증거 자료는 확보되지 않았다. 오히려 『법화경』과의 관련성을 뒷받침해주던 경주 불국사 쌍탑의 석가탑과 다보탑이 최근 공개된 석탑 중수문서를 통해 창건당시의 명칭이 아니라 후대에 변화된 명칭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화경』과의 관련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형식의 변화라는 것은 변화된 의식을 반영한 결과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쌍탑가람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출현은 7세기 후반 신라 불교신앙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신라 쌍탑가람의 성립과 관련하

* 본 논문은 2005년 9월 한국미술사학회 제 146회 월례연구발표회 구두발표 내용의 일부를 추가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전임연구원(khan804@hanmail.net)

여 주목되는 인물은 사천왕사를 창건한 명랑법사와 불교미술의 새로운 양식을 선도했던 예술가 양지스님이다. 금광사(金光寺)와 사천왕사(四天王寺)의 창건을 통해 드러난 사명랑법사의 신앙은 『합부금광명경』에 바탕을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합부금광명경』은 7세기 중엽이후 신라 호국불교를 주도했던 소의경전으로 시기적으로 쌍탑가람 성립기와 맞물리는 경전이다. 쌍탑가람의 출현과 관련하여 『합부금광명경』의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三身分別品과 捨身品이다. 쌍탑가람의 금당과 두 탑은 삼신(三身)을 상징하는 건축으로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례로 7세기 중엽에 제작된 일본 호류지(法隆寺) 옥충주자(玉虫廚子)에 그려진 영축산 정도도는 「삼신분별품」에 근거한 도상으로 쌍탑가람을 회화로 표현한 것에 다름없다. 그리고 기존 『법화경』 관련설의 입장에서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았던 다보불탑의 사리봉안 문제의 취약성과 비교하여 「사신품」은 석가의 사리를 봉안한 별도의 불탑이 공존할 수 있다는 교리적 근거를 제시해 준다.

쌍탑가람의 출현과 맞물려 신라의 주요 가람배치 형식이었던 일탑삼금당가람이 소멸되고 사리기의 형식이 변화되는 현상을 통해 불탑이 여래의 묘처(墓處)라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점차 여래의 주처(住處)의 개념으로 전환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주제어 : 쌍탑, 가람배치, 금광명경, 사천왕사, 영묘사

I. 머리말

신라 불교건축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쌍탑가람(雙塔伽藍)의 출현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하는 쌍탑가람이란 금당전면에 2기의 불탑이 대칭으로 동시기에 건립되는 가람형식을 말한다.

불교사원에서의 불탑은 부처의舍利를 봉안하기 위해 건립된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석가의 분묘(墳墓)라는 고유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사리는 근본적으로 석가 육신(肉身)의 상징체이기 때문에 한 사찰에 2기의 불탑이 건립되는 것은 곧 부처의 육신을 둘로 나누어 봉안한 2기의 분묘를 조성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와 같이 불탑이 지니는 분묘로서의 속성으로 인해 쌍탑가람에 대한 해석은 시작부터 곤경에 처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쌍탑가람의 출현은 대부분 『법화경』 「見寶塔品」에서 신앙적 근거를 찾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경주 불국사의 쌍탑이 석가탑(釋迦塔)과 다보탑(多寶塔)이라는 탑명으로 전래되어 비교적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고려시대 불국사 석탑 중수문서에는 석가탑을 ‘서석탑(西石塔)’, 그리고 다보탑은 ‘무구정광탑(無垢淨光塔)’으로 표기하여 석가와 다보라는 탑명은 창건 당시의 명칭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이르러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쌍탑가람을 『법화경』과 연관 짓기에는 5세기 초에 한역된 이후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기 보다는 전시기에 걸쳐 널리 신앙되던 경전이라는 점에서 그 연속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쌍탑가람이라는 특수한 가람배치의 교리적 전거는 쌍탑가람이 출현하는 7세기 후반 신라 불교신앙의 특수성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재론의 여지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신라 쌍탑가람의 최고 사례는 문무왕 19년(679)에 완공된 사천왕사이다. 형식의 변화는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천왕사의 건립을 주도했던 명랑법사의 불신관(佛身觀)이 곧 쌍탑가람의 건립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따라서 일부 설화적으로 윤색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삼국유사』에 기록된 사천왕사 창건관련 기사는 신라 쌍탑가람 출현의 신앙적 근거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II. 쌍탑가람의 출현에 대한 기존 견해

쌍탑가람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지속되었다. 먼저 일제강점기 일인 학자들은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건립되기 시작한 쌍탑가람을 당식(唐式)으로 분류하고, 당의 제도를 모방하면서 건립되기 시작한 가람형식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쌍탑이 건립될 경우 두 탑의 형식은 대부분 서로 동일하지만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은 『법화경』에 의거하여 다보석가이불명좌(多寶釋迦二佛並坐)의 의미를 반영하여 전혀 다른 형식의 석탑이 건립된 것으로 파악하였다.¹⁾

이후 한국미술사의 선구자인 고유섭은 쌍탑가람의 출현 원인을 금당과 탑의 가치 변화의 관점에서 사찰조영에 적용된 당탑(堂塔) 비율의 변천을 주목하였다. 금당과 탑의 비율은 금당 면적에 대한 탑 면적의 비율을 수치로 환산한 것으로, 고구려 금강사 0.7, 백제 미륵사 0.6, 신라 황룡사 0.5, 분황사 0.3 순으로 창건시기가 늦을수록 당탑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이는 곧 탑에 비해 금당의 중요성이 증가되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쌍탑식 가람의 출현도 금당에 대한 탑의 가치의 저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해석하였다. 아울러 쌍탑가람의 분류는 설령 당조(唐朝) 가람형식의 영향에서 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념적으로는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의 사례에 주목하여 법화신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²⁾ 이러한 고유섭의 견해는 건축적으로 당탑의 규모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독창적인 해석으로 지금까지도 여러 논저에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신앙적인 근거로서는 역시 법화신앙을 제시한 기존의 해석과 차이가 없다.

1) 杉山信三, 『朝鮮の石塔』, 彰國社, 1944, 102~104쪽.

2) 고유섭, 『朝鮮塔婆의 研究』, 을유문화사, 1946, 157~160쪽.

처음으로 쌍탑과 법화신앙의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한 학자는 쌍탑에 모두 사리가 봉안된다는 사실에 주목한 가야모토 도진(樵本杜人)이다. 그는 사리가 석가의 신사리(身舍利)를 상징하기 때문에 분사리(分舍利)라 하더라도 한 몸에서 출현한 석가의 사리는 동일하고, 그것을 안치하는 분묘로서의 탑도 하나의 사찰에 하나인 것이 원칙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하였다. 아울러 다보여래는 법신불(法身佛)이기 때문에 탑에 사리를 안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사리가 봉안되는 모든 쌍탑을 법화신앙에 바탕을 두고 건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쌍탑에 공통적으로 사리가 봉안되어 하나의 사원에 두 개의 석가 분묘를 건립한 것은 별도의 이유가 있을 것이며, 쌍탑가람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그 시대 불교사상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³⁾

그러나 쌍탑가람 형성에 대한 초기연구에서 제기된 법화신앙설의 기초는 이후 전개된 대부분의 논문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⁴⁾ 그러나 쌍탑이 『법화경』 견보탑품을 바탕으로 건립되었다면 쌍탑에 모두 사리가 봉안되는 현상이 해석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쌍탑의 건립이 견보탑품에 근거했다면 각각의 탑은 다보여래와 석가여래를 상징하는 탑이 되는데, 교리적으로 과연 다보탑에 사리를 봉안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리는 부처의 열반이 전제될 때 출현하는 상징체이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이나 아미타불, 다보불 등의 불신(佛身)에서는 사리가 출

3) 樵本杜人, 「日鮮上代寺院の舍利莊嚴具について」, 『佛教藝術』 33, 1958, 66~67쪽.

4) 한정희, 「한국 고대쌍탑의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64; 김상태·박연곤, 「7·8세기 동아시아 2탑식가람의 생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2권, 2003; 김상태, 「신라시대 가람의 구성원리와 밀교적 상관관계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04; 곽경순, 「신라 사천왕사 쌍탑에 관한 연구」, 『경주사학』 23, 2004; 김상태, 「감은사의 사리장엄에 의한 2탑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6권, 2007.

현할 수 없다. 실제 중국이나 일본에 존재하는 다보탑은 쌍탑으로 조성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사리를 봉안한 사례 역시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된 통일신라시대 쌍탑가람에서는 두 탑에 모두 사리가 봉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⁵⁾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법화신앙에 입각한 쌍탑발생설의 가장 확고한 근거자료는 불국사 쌍탑이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이름으로 전래되었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고려시대 불국사 석탑 중수문서에는 석가탑을 ‘서석탑(西石塔)’, 그리고 다보탑은 ‘무구정광탑(無垢淨光塔)’으로 표기하여 늦어도 11세기 초까지는 석가탑 혹은 다보탑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석가·다보라는 탑명은 불국사 창건당시의 명칭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이르러 성립된 명칭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불국사의 쌍탑은 더 이상 법화신앙에 입각한 쌍탑발생설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쌍탑가람을 『법화경』과 연관 짓기에는 5세기 초에 한역된 이후 특정한 시기에 유행한 경전이 아니라 전시기에 걸쳐 널리 유포되었던 경전이라는 점에서 그 연속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쌍탑가람이 법화신앙에 근거했다면 삼국시대의 가람에 적용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7세기 후반에 이르러 신라에 쌍탑가람이 출현했다는 사실은 당시 불교신앙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결국 쌍탑가람이라는 특수한 가람배치의 교리적 전거는 쌍탑가람이 출현하는 7세기 후반 신라 불교신앙의 특수성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5) 지금까지 쌍탑에서 사리기가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는 감은사지 쌍탑, 갈항사지 쌍탑, 불국사 쌍탑, 실상사 쌍탑 등이 있으며, 사천왕사지나 망덕사지와 같이 많은 쌍탑의 사리기가 유실되었지만 사리를 봉안했던 사리공이 남아있어 사리를 봉안했음을 알 수 있다.

Ⅲ. 신라 쌍탑가람의 始原 再考

신라 쌍탑가람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하나같이 그 시원을 사천왕사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사천왕사의 가람배치가 명랑법사의 주도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본다면 명랑법사가 당나라 유학에서 돌아온 시기를 감안할 때, 과연 쌍탑의 건립이 사천왕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을까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명랑법사의 행적을 믿는다면 ‘신라 선덕왕 元年(632)에 당나라에 들어갔다가 貞觀 9년 乙未(635)에 돌아왔다.’⁶⁾라고 하여 귀국 이후 사천왕사가 완공되는 문무왕 19년(679)에 이르기까지의 활동기간이 대략 45년에 달한다.

명랑법사의 아버지는 사간(沙干) 재량(才良)이고 어머니는 소판(蘇判) 무림(茂林)의 딸이자 대국통(大國統)을 지낸 자장(慈藏)의 누이동생인 남간부인(南澗婦人)이다. 그리고 위로 두 형제는 국교대덕(國敎大德)과 의안대덕(義安大德)으로⁷⁾ 그 가계의 위세와 그에 따른 신라 불교계에서의 영향력에 비추어 당시 신라에서 벌어졌던 불사(佛事)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 명랑법사의 신라 불교계에서의 위상은 그가 창건한 금강사(金剛寺) 낙성식에 신라의 고승들이 모두 모였다는 기사를 통해서도 짐작된다.⁸⁾

명랑법사가 당에서 귀국하는 635년 이후부터 사천왕사가 건립되기까지 약 45년 동안에도 신라에는 여러 사찰이 건립되었다. 기록을 통해

6) …善德王元年入唐 貞觀九年乙未來歸…(『三國遺事』 권 5, 明朗神印條).
 7) … 師諱明朗 字國育 新羅沙干才良之子 母曰南澗夫人 或云法乘娘 蘇判茂林之子金氏 則慈藏之妹也 三息長曰國敎大德 次曰義安大德 師其季也…(『三國遺事』 권 5, 明朗神印條).
 8) …又神印祖師明郎 新創金剛寺 設落成會龍象畢集…(『三國遺事』 권 4, 二惠同塵條). 이 기록에서의 金剛寺는 金光寺의 誤記로 보인다.

이 시기에 창건되었다고 추정되는 사찰들 가운데 신라 왕경에 위치한 사례는 영묘사, 금광사, 석장사, 법림사 등이 있으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 시기에 창건된 사찰들 가운데 문헌 자료를 통해 쌍탑가람으로 건립되었다고 확인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기록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쌍탑가람이 아니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학계에서 신라 쌍탑가람의 시원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천왕사의 경우 절터와 쌍탑지의 유구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발굴조사 이전에도 가람배치형식 파악이 가능했기 때문이지 실제 사천왕사 관련기록 어디에도 쌍탑가람이라는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

기록을 통해서 사천왕사 이외에 명랑법사가 창건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찰은 금광사(金光寺)가 유일하다. 금광사는 다소 설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명랑법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다 용의 청에 따라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하고 땅 밑을 통해 자기 집 우물 밑에서 솟아나온 후 집을 회사하여 창건한 사찰로 기록되고 있다.⁹⁾ 금광사의 구체적인 창건연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기록의 전반적인 흐름과 혜공(惠空)이 낙성식에 참석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명랑법사의 귀국으로부터 그리 멀지않은 시기로 추정된다.

금광사의 위치는 경주 남산 남간사지 인근으로 추정될 뿐 안타깝게도 사찰의 규모나 가람배치는 이미 경작지로 변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광사 창건 내력이 명랑법사가 사천왕사 창건에 관여하게 된 계기와 연관되고, 신인사(神印寺)로 추정되는 경주 남산 탑곡마애불을 비롯한 원원사(遠願寺) 등 명랑법사가 제창한 신인종계열의 사찰이 모두 쌍탑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금광사가 사천왕사에 앞서 쌍탑가람으로 조영되었을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9) …將還 因海龍之請 入龍宮傳秘法 施黃金千兩 一云千斤 潛行地下 湧出本宅 井底 乃捨爲寺 以龍王所施黃金飾塔像 光曜殊特 因名金光焉…(『三國遺事』 권 5, 明朗神印條).

사천왕사에 앞서 쌍탑이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찰 중에는 발굴조사를 통해 쌍탑유구가 확인된 영묘사(靈廟寺)가 주목된다. 선덕왕 4년(635)에 창건된 영묘사는 사천왕사 쌍탑의 녹유신장상을 조각한 良志스님이 장육삼존상과 사천왕상, 그리고 불전과 탑의 기와제작에 참여한 사찰이다.¹⁰⁾ 영묘사의 위치는 그 동안 흥륜사(興輪寺)의 위치와 혼동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문헌 검토와 최근에 새롭게 확보된 고고학적 자료 분석을 통해 1970년대에 흥륜사라는 사찰이 들어선 절터가 원래 영묘사지임이 확인되었다.¹¹⁾

영묘사지는 1970년대 초부터 80년대 초에 걸쳐 4차례의 부분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서회랑지로 추정되는 건물유구의 일부와 동서 탑지가 확인되었다. 당시의 조사는 부분적인 발굴이었기 때문에 가람배치 전모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동서회랑 내곽의 동서거리가 96.2m에 이르는 대규모의 가람임이 확인 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목탑지는 59.2m의 중심거리를 두고 동서 대칭으로 위치한 쌍탑이며, 각 탑의 중앙에 직경 11m 안팎의 원형적심을 구축하고, 적심에서 외곽으로 2m 간격의 8각 지대석을 두른 팔각목탑지로 밝혀졌다.¹²⁾[그림 1]

영묘사지에서 쌍탑유구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신라 쌍탑가람의 출현 시기를 소급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발굴된 목탑지는 기단 하부에 깔려있는 기와층 분석을 통해 창건당시의 유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문에서는 동탑지 기단 하부의 기와층에 삼국시대 말기 이래 통일신라시대 중기 이전의 각종 기와편이 포함되어 있어서

10) …靈廟丈六三尊天王像并殿塔之瓦 天王寺塔下八部神將 法林寺主佛三尊 左右金剛神等 皆所塑也 書靈廟法林二寺額…(『三國遺事』 권 4, 良志使錫條).

11) 박홍국, 「瓦塼資料를 통한 靈廟寺址와 興輪寺址의 位置 比定」, 『신라문화』 20, 2002 ; 이근직, 「신라 흥륜사 위치관련 기사 검토」, 『신라문화』 20, 2002.

12) 신창수, 「흥륜사의 발굴성과 검토」, 『신라문화』 20, 2002, 290~295쪽.

창건가람이 황폐된 후 다시 전면적으로 재건되는 과정에서 쌍탑이 건립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시기는 통일신라 중기 이전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통일신라 후기에는 조성된 것으로 보았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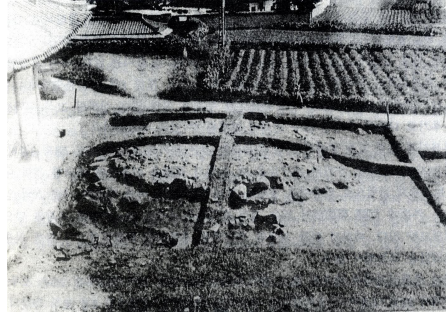


그림 1. 영묘사 탑지

그러나 이상에서 보고된 내용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우선 목탑지 기단하부에서 발굴된 기와 가운데 통일신라 중기로 편년한 기와가 어떤 종류의 기와인지 실물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리고 통일신라 중기 이후의 기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쌍탑의 건립시기를 통일신라 후기로 추정하는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영묘사가 쌍탑가람으로 전환된 시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절터의 전면발굴조사가 진행되거나 적어도 기존 발굴조사에 대한 정식보고서가 간행되고 실물자료가 공개된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되는 사항은 발굴조사 당시의 상황은 이 일대가 영묘사지가 아닌 흥륜사지라는 전제하에 조사되어 조사내용과 문헌자료와의 비교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묘사는 창건이후 유달리 화재가 많았던 사찰로 문헌에 기록된 화재기사만 해도 다섯 건이 알려져 있다. 영묘사가 초창이후 쌍탑가람으로 재정비되었다면 아마도 대규모의 화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섯 차례의 화재 가운데 선덕왕대에 있었던 화재는 구체적인 연대는 알 수 없지만 혜공스님이 이적을 보인 기사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영묘사 가람배치의 대략과 구체적으

13) 신창수, 위의 논문, 296쪽.

로 탑이 화재를 당한 사건을 밝히고 있다.

… 어느 날 풀로 새끼를 꼬아 가지고 영묘사에 들어가서 금당과 좌우에 있는 경루(經樓)와 남문(南門)의 낭무(廊廡)를 묶어 놓고 강사(剛司)에게 말했다. “이 새끼를 3일 후에 풀도록 하라.” 강사가 이상히 여겨 그 말에 좇으니, 과연 3일 만에 선덕왕이 행차하여 절에 왔는데, 志鬼의 심화(心火)가 나와서 그 탑을 불태웠지만 오직 새끼로 맨 곳만은 화재를 면할 수 있었다…¹⁴⁾

위의 기사에 등장하는 선덕여왕과 지귀에 얽힌 이야기는 조선시대 權文海가 편찬한 『大東韻府群玉』에 『신라수이전』에 수록되었던 志鬼說話를 <心火遶塔>이라는 제목으로 전제되어 그 전후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기사내용은 설화적인 성격이 강하고, 『삼국사기』에는 선덕왕대의 영묘사 화재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기록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지귀와 연관된 설화의 내용은 『大智度論』에 실린 <術波加 說話>와 중심 구조가 같다는 사실이 밝혀졌다.¹⁵⁾

문헌자료를 통해 추정한다면 영묘사의 가람배치가 재정비되는 시기는 문무왕대의 화재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삼국사기』에는 문무왕 2년(662) 2월과 6년(666) 4월, 8년(668) 12월에 걸쳐 3차례의 영묘사 화재가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기사는 문무왕 6년의 화재로 ‘4월에 영묘사에 화재가 났으므로 죄수들을 대사(大赦)하였다.’¹⁶⁾

14) …又一日將草索綯 入靈廟寺 圍結於金堂 與左右經樓及南門廊廡 告剛司 此索須三日後取之 剛司異焉而從之 果三日善德王駕幸入寺 志鬼心火出燒其塔 唯結索處獲免…(『三國遺事』 권 4, 二惠同塵條).

15) 인권환, 「心火遶塔 說話攷」, 『국어국문학』 41, 1968.

16) …夏四月 靈廟寺災 大赦…(『三國史記』, 권 6, 문무왕 6년조).

라고 하여 국가적 천재지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 영묘사의 사격(寺格)과 화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영묘사의 국가적 중요도에 비추어 화재이후 곧바로 재정비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 시기에 영묘사가 쌍탑가람으로 재정비되었다면 사천왕사의 완공에 10여년 앞서게 된다.

그리고 영묘사와 관련된 승려 가운데 신라 불교미술의 새로운 양식을 선도했던 조각가 양지스님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양지는 사천왕사 쌍탑의 신장상을 조각했던 인물로 그의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작품들은 안압지의 기와와 석장사지 전불, 사천왕사지 녹유신장상과 더불어 영묘사지의 기와 등이 남아있다. 양지의 구체적인 생몰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선덕왕대에 영묘사 장육존상을 조각했다는 기록을 신뢰하여 선덕왕대에서 문무왕대에 활약했던 조각승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그의 작품들은 양식적으로 7세기 중엽 이상 소급되는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최근 그가 주석했던 석장사지 탑상문전은 현장이 인도에서 귀국한 이후 조성된 장안의 자은사 일원에서 발견되는 압출전불(壓出傳佛)의 영향이 간취되고, 영묘사 장육존상 조성 당시 불렀던 향가 역시 압출전불에 새겨진 '선업니(善業泥)'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¹⁷⁾ 따라서 영묘사 장육상이 현존하지 않아 확신할 수 없지만 양지가 영묘사 불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시기는 문무왕대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¹⁸⁾

특히 영묘사지 출토유물 가운데 두 귀가 높이 솟은 귀면와는 현재까지 영묘사지 이외에는 출토된 적이 없는 고유기와로 안압지와 사천왕

17) 이 같은 내용은 김지현에 의해 2009년 9월 한국미술사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되었다.

18) 양지의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7세기 전반 선덕왕대보다는 문무왕대에서 신문무왕대에 걸친 7세기 후반기에 활약했던 인물이라는 시각이 있다.(강우방, 『新良志論』, 『미술자료』 47, 1991, 14쪽)

사에서 출토된 귀면과 조각수법이 유사하여 양지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특이한 형식의 귀면와는 그간 출토된 사례가 없어 건물의 어느 위치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영묘사 목탑에 사용되었던 부재라는 견해가 있다.¹⁹⁾[그림



그림 2. 영묘사지 출토 귀면

2] 그렇다면 이 기와가 사용된 목탑의 건립 시기는 문무왕대라는 추정이 가능하며, 기존의 일반 건축에서는 사용된 사례가 없는 특이한 구조의 와전이라는 점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팔각형태의 목탑에 사용되었던 와전(瓦搏)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영묘사지에서 발견된 쌍탑유구의 형성 시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절터 전체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된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헌사료와 양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귀면와를 토대로 영묘사가 가람 전반에 걸쳐 재정비되는 시점은 문무왕 6년(666)의 화재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영묘사지에서 발굴된 쌍탑유구가 사천왕사에 앞서 건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하더라도 사천왕사에 대한 ‘신라 쌍탑가람의 시원’ 또는 ‘최초의 쌍탑가람’이라는 식의 극단적인 수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IV. 사천왕사의 창건과 금광명경

1. 사천왕사 창건의 교리적 典據

19) 박홍국, 『한국의 전탑연구』, 학연문화사, 1998, 204~208쪽.

7세기 후반 신라 불교신앙의 특수성은 대표적 호국사찰인 사천왕사의 창건에 반영되어 있다. 일부 설화적으로 윤색되었지만 사천왕사의 창건에 관한 문헌자료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며, 이를 통해 사천왕사 창건의 신앙적 배경을 밝히는 것은 곧 쌍탑 건립의 교리적 근거의 해석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사천왕사 창건의 신앙적 배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당전쟁과정에서 행해졌던 명랑법사의 문두루비법(文豆累秘法)에 주목하여 『灌頂經』과 관련된 논의에 집중되고 있다.²⁰⁾ 이들 논의는 문두루비법의 이해와 가람배치에 있어 기존에 종루·경루로 추정되던 건물지의 성격을 규명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쌍탑의 건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천왕사 창건의 근본이 되는 경전적 전거는 사실 문두루비법이라는 신이한 의식(儀式)에 가려져 있다. 『관정경』에 의거한 문두루비법은 670년 당시 채색비단으로 가설했던 의식단의 설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후 완공된 가람에서의 단석(壇石)은 사원 중심이 아니라 익랑 후원의 동서로 자리를 옮겨서 건립되었다. 사천왕사 전체 가람배치가 금당을 중심으로 사방에 건물을 배치함으로써 오방신(五方神)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견해는 일부 납득되지만 어디까지나 사찰 후원에 배치된 특수한 건물지의 성격과 의식에 대한 해석이지 쌍탑 건립의 교리적 근거는 될 수 없다. 다음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천왕사(四天王寺)라는 사명이 정착된 시기는 670년 사찰을 가설할 당시가 아니라 679년 사찰이 완공되었을 때이다.

...명랑이 채색 비단으로 절을 임시로 지으라고 말하였
고 이에 채색비단으로 절을 짓고 풀로 오방신상을 만들

20) 문명대, 「新羅 神印宗의 研究」, 『진단학보』 41, 1976 ; 장충식, 「신라 낭산 유적의 제문제」, 『신라와 낭산』,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96.

고, 유가명승 12명이 명량을 우두머리로 하여 문두루밀법을 행하니 그때 당나라와 신라의 군사가 싸우기도 전에 풍량이 크게 일어 당나라의 배가 모두 침몰하였다. 그 후 절을 고쳐지어 사천왕사라 했는데 지금까지 단석이 끊어지지 않았다...²¹⁾

사명(寺名)이 사찰의 성격을 대표한다고 본다면 이미 여러 선학들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사천왕사라는 사명이 『금광명경』의 사천왕품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의 기록에서 ‘당나라 군사와 교전하기도 전에 풍량이 크게 일어 당나라의 배가 모두 침몰하였다’라는 기사는 사실여부를 떠나 다음에 제시한 『금광명경』 사천왕품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 만약 어떤 왕이 이 경을 들을 때, 이웃 나라 원수와 적이 네 가지 병사를 일으켜 이 나라를 파괴하리라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위신력으로써 그때 그 이웃 나라에 다시 다른 원수가 쳐들어와 난리를 일으켜 그 나라에 모든 괴로운 이상한 재앙과 질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때 원수와 적은 이와 같은 모든 나쁜 일이 끝나고 나서 군사를 동원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직접 토벌하면 저희들이 그 때 마땅히 권속과 한량없고 끝이 없는 백천의 귀신들과 함께 그 모습을 숨기고 구호하여 도와서 그 원수의 적이 자연히 물러나 흩어지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두려움과 갖가지 재난을 일으켜 저 나라 병사무리가 오히려 다가오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다시 마

21) ...明朗曰“以彩帛假搆宜矣。”乃以彩帛營寺，草搆五方神像，以瑜珈明僧十二員，明朗爲上首，作文豆婁秘密之法。時唐羅兵未交接，風濤怒起，唐船皆沒於水。後改創寺，名四天王寺，至今不墜壇席... (『三國遺事』卷 2, 文虎王法敏條).

땅히 파괴시킬 수 있겠습니까 …²²⁾

사천왕사의 창건을 주도했던 명랑법사의 신앙체계는 그가 개창한 신인종(神印宗) 연구를 통해 『금광명경』, 『관정경』, 『관불삼매해경』 등의 경전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알려진다. 사천왕사의 창건과 더불어 명랑법사가 『금광명경』의 신앙체계에 기본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는 금광사(金光寺)의 창건이다.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용왕이 보시한 황금으로 탑과 불상을 장식하니 유난히 광채가 났기 때문에 절 이름을 금광사라 했다’²³⁾고 하지만 금광사라는 사명은 곧 『금광명경』에서 유래된 이름이다.²⁴⁾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吉藏이 저술한 『金光明經疏』에 의하면 ‘金光明’은 삼신불(三身佛)을 나타내는 것으로 金은 법신(法身)을, 光은 응신불(應身佛), 그리고 明은 화신불(化身佛)을 각각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²⁵⁾ 이를 『삼국유사』에 기록과 연결하여 해석한다면 금광사의 불상과 탑 조영에 『금광명경』의 삼신불관(三身佛觀)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신라 호국불교의 전개는 『인왕경』에 바탕을 둔 백고좌회에 이어 중

22) …若有人王廳是經時 隣國怨敵興如是念 當具四兵壞彼國土 世尊 以是經典 威神力故 爾時隣敵更有異怨爲作留難 於其境界起諸 衰惱災異疾病 爾時怨敵起如是等諸惡事已 具四兵發向是國規往討罰 我等爾時當與眷屬無量無邊 百千鬼神 隱蔽其形爲作護助 令彼怨敵自然退散 起諸怖懼種種留難 彼國兵衆尙不能到 況復當能有所破壞…(『合部金光明經』 卷 第五, 四天王品 第十 (大正藏 권 16, 382c)).

23) …以龍王所施黃金飾塔像 光曜殊特 因名金光焉…(『三國遺事』 권 5, 明朗神印條).

24) 문명대, 앞의 논문, 205~207쪽.

25) …論其宗極表三種三法 一表三身佛果 二表涅槃三德 三表三種佛性 表三身者 金體眞寶譬法身佛 光用能照譬應身佛 明能遍益猶如化身…(吉藏, 『金光明經疏』(大正藏 권39, 160b)).

대로 접어들면서 『금광명경』을 강경하는 호국법회로 전환되었다.²⁶⁾ 사천왕사 창건을 전후하여 『금광명경』 신앙이 팽배했음은 이시기 『금광명경』 관련 저술이 집중되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원효(元曉)가 『金光明經疏』 8권을 찬술했고, 경흥(憬興)도 『金光明經略意』, 『金光明經述贊』, 『金光明最勝王經略贊』, 『最勝王經疏』 등 여러 주석서를 편찬했다. 특히 경흥은 문무왕과 신문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국노(國老)에 임명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당시 불교신앙의 핵심은 『금광명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거론한 사천왕사관련 기록과 명랑법사의 행적, 그리고 다시 신라 불교신앙의 추이를 통해 볼 때, 사천왕사 창건의 큰 틀은 『금광명경』을 소의경전으로 건립된 것으로 봐야한다. 그리고 쌍탑가람이라는 독특한 가람배치의 건립배경을 당시 불교신앙의 변화 속에서 구한다면 역시 『금광명경』의 교리체계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금광명경과 쌍탑가람

대표적인 호국경전 가운데 하나인 『금광명경』은 5세기 초 북량의 담무참(曇無讖)에 의해 4권본 『금광명경』이 번역된 이후 593년 보귀(寶貴)가 8권으로 엮은 『합부금광명경』과 당나라 의정이 703년에 번역한 10권 『금광명최승왕경』 등 세 번에 걸쳐 한역되었다. 이 가운데 신라에 유입된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성덕왕 3년 ‘3월에 견당사 金思讓이 還朝하여 最勝王經을 헌상하였다.’고 하여 703년 의정이 번역한 『금광명최승왕경』이 이듬해에 바로 신라에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⁷⁾ 그리고 수나라 보귀가 번역한 『합부금광명경』은 구체적인 전래기록은 없지만

26) 김복순, 「신라 왕경 사찰의 분포와 체계」, 『신라왕경의 구조와 체계』,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6, 124~128쪽.

27) …三月 入唐金思讓廻 獻最勝王經…(『三國史記』 8 권, 聖德王 3년조).

원효의 『금광명경소』가 보귀의 번역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어서 7세기에 이미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천왕사 창건의 소의경전이라고 볼 수 있는 『금광명경』은 명랑법사의 유학 시기(632~635)나 원효의 주석서가 이미 간행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593년에 보귀가 8권으로 엮은 『합부금광명경』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신라 쌍탑가람의 근거를 『금광명경』에서 찾는다면 먼저 『합부금광명경』의 체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담무참에 의해 4권본 『금광명경』과 보귀의 『합부금광명경』을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담무참의 번역본에 수록되지 않은 「三身分別品」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이다. 삼신(三身)이란 불신(佛身)을 세 가지로 분류한 교리체계로 경전마다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르게 해설하고 있다. 『합부금광명경』(이하 금광명경으로 통일함)에는 삼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설이 실려 있다.

…선남자여, 모든 여래는 세 가지 몸이 있으니 보살마하살은 모두 반드시 알아야한다. 어떤 것이 그 셋인가? 첫째는 변화로 나타내는 몸(化身)이요, 둘째는 응하여 나타나는 몸(應身)이요, 셋째는 진리의 몸(法身)이다. 이와 같은 세 몸으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거두어 받아들인다.…²⁸⁾

여러 경전에 등장하는 삼신에 대한 해석은 형이상학적이고 난해한 구조로 인해 불교학을 전공하지 않은 필자에게 그 개념의 정리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다만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된 화엄의 삼신에 입각하여 응신(應身)과 보신(報身)이 서로 다르게 표기되었지만 그 개념은 크

28) …佛言 善男子 諦聽諦聽善思念之 吾當爲汝分別解說 善男子 菩薩摩訶薩 一切如來有三種身 菩薩摩訶薩皆應當知 何者爲三 一者化身 二者應身 三者法身 如是三身攝受阿耨多羅三藐三菩提…(『合部金光明經』 卷 第一, 三身分別品 第三(大正藏 권 16, 362c)).

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이해할 뿐이다. 문제는 신앙적 바탕이 다르지만 조선시대 불교회화에서 화엄신앙에 입각하여 삼신불이 불화로 그려지는 사례에 비추어 어찌면 『금광명경』의 삼신 역시 조형화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문제에 관심이 모아진다. 왜냐하면 쌍탑가람이 한 사찰의 중심영역에 부처를 상징하는 3동의 건물을 배치한 다는 점에서 금당과 쌍탑은 서로 다른 불신의 상징체로 건립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광명경』에서 설한 삼신이 조형화되었을 가능성은 현재 국내에는 금광명경을 소의경전으로 제작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불교미술품이 남아있지 않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고대 불교미술 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는 일본의 작품 가운데 호류지(法隆寺)에 소장된 옥충주자(玉虫廚子)를 통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그림 3]



그림 3. 호류지 옥충주자

일본 호류지에 소장된 옥충주자는 고대 불교미술의 모든 장르가 집약된 작품으로 고대 동아시아 불교미술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현존 최고의 목조사천왕상인 호류지 금당의 사천왕상과 세트로 제작된 옥충주자는 사천왕상의 광배에 새겨진 제작자와 『일본서기』의 기록으로 미루어 백치(白雉) 원년(650)에 효덕 천황(孝德天皇)의 명에 의해 제작된 천불상(千佛像)으로 추정된다.²⁹⁾

법륜사 사천왕상은 호국경전인 『금광명경』 신앙에 의거하여 제작된 최초의 사례로 신라 사천왕사 창건과 비교된다. 이와 세트로 조성된 옥

29) 한정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의 편년 재검토」, 『불교미술사학』 3,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2005, 46쪽.

충주자에 장엄되어 있는 회화 가운데 수미좌 우측면의 사신사호도(捨身飼虎圖)는 일찍부터 『금광명경』의 「捨身品」에 의해 그려졌다고 알려져 왔다.[그림 4]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사신사호도 뿐만 아니라 수미좌정면의 사리공양도(舍利供養圖)와 궁전부 배면의 영축산정토도(靈鷲山淨土圖)도 모두 『금광명경』에 근거하여 그려졌다는 주장이 있어 주목된다.³⁰⁾



그림 4. 옥충주자 사신사호도

옥충주자의 그림 가운데 쌍탑가람과 관련하여 가장 이목을 끄는 그림은 그동안 『법화경』과 연관 지어 해석했던 영축산정토도이다. 이 그림에는 영축산 위에 있는 세 개의 보탑(寶塔) 속에 각각 삼불(三佛)이 정좌하고 있는 장면이 표현되어 그야말로 쌍탑가람을 회화로 번안한 것과 다름없다.[그림 5] 따라서 옥충주자에 그려진 영축산정토도가 『금광명경』 삼신분별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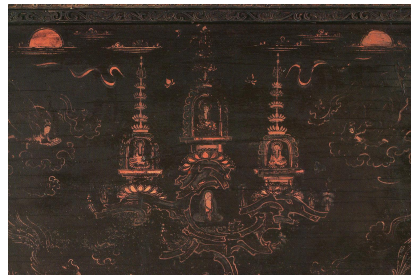


그림 5. 옥충주자 영축산정토도

입각한 그림이라는 해석이 맞다면 이는, 곧 신라 쌍탑가람의 교리적 근거 역시 『금광명경』의 삼신분별품이라는 사실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호류지의 옥충주자는 사천왕상과의 조합관계나 사신품의 내용을 그림으로 옮긴 사신사호도와 사리공양도로 미루어 『금광명경』을 소의경전으로 제작되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옥충주자에 그려진 영축

30) 松浦正昭, 『日本の佛教美術4-飛鳥白鳳の佛像』, 至文堂, 2004, 22~23쪽.

산정토도의 보탑 안에 정좌한 삼불을 삼신분별품과 연결시킨 해석은 탁견으로 인정되며, 이를 통해 『금광명경』에서 경설(經說)한 삼신(三身)이 조형화될 수 있다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쌍탑가람의 금당과 쌍탑이 삼신을 상징하는 조형으로 건립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다만 금당과 쌍탑을 삼신에 적용할 경우 금당에 봉안된 불상을 법신, 그리고 쌍탑을 응신과 화신에 적용해야하는데, 과연 응신이 불탑으로 조형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문제는 쌍탑가람의 근거를 『법화경』 견보탑품으로 보는 견해에서 지적했던 다보탑에 사리를 봉안할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석가의 사리를 양분하여 봉안할 수 있는 교리적 근거의 문제와도 상통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석가의 전신(前身)을 응신(應身)과 결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교학적인 해석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적어도 각각 사리를 봉안한 쌍탑건립의 교리적 근거를 『금광명경』 「捨身品」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신품은 석가의 전생인 마하살타왕자 시절 굶주림에 곧 죽을 것 같은 어미호랑이와 새끼 일곱 마리를 위해 육신을 보시한 전생담이 주된 내용이다. 사신품은 도량보리수신의 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그 때 세존께서 곧 神尼通을 나타내어 신족통의 힘으로 대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대강당에 대중이 모인 가운데서 七寶塔이 땅에서 솟아나고 온갖 보배의 그물이 그 위를 가득 덮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녀천 아 내가 본래 보살도를 닦아 행할 때 내 몸의 사리를 이 탑에 넣어 두었다. 그리고 이 몸으로 말미암아 아늑다라 삼막삼보리를 이루었다.” 그 때 부처님께서 존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탑을 열고 그 속의 사리를 꺼내어 이 대중에게 보여라. 이 사리는 한량없는 육바라밀의 공덕이 배어 있는 것이다.” 그 때 아난이 부처님의 말씀

을 듣고 곧 탑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하고 공양하고 나서
그 탑의 문을 여니 그 탑 속에서 칠보의 함이 보였다. 손
으로 그 함을 열고 보니 그 사리의 색이 아름답고 불고
흰색이었다... 31)

위에 제시한 사신품의 내용 가운데 땅에서 칠보탑이 솟아나오는 대
목은 『법화경』 견보탑품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탑 속에 석가 전생의 사리가 봉안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해석하기
에 따라 과거불의 사리(舍利)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생에 닦은 과보(果
報)의 상징으로 본다면 보신의 의미가 반영된 사리일 수도 있다. 특히
마하살타왕자는 육신을 버릴 때 ‘원컨대 나의 사리는 미래세에 헤아릴
수 없는 겁을 거치면서 항상 중생을 위하여 불사(佛事)를 집을 짓겠다’
라고 발원하였다.³²⁾ 마하살타의 서원대로라면 그의 사리를 봉안한 탑
은 과거의 어느 시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유지되는 존
재이다. 따라서 동일한 석가의 사리라 하더라도 전생을 상징하는 사리
를 봉안한 탑은 현세불(現世佛)인 석가의 사리를 봉안한 탑과는 별도로
건립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쌍탑이 건립될 수 있었던 교리적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사족을 더한다면 그동안 법화신앙과 연결 지어 해석되어 온
불국사 다보탑 역시 『금광명경』 「사신품」에 의거하여 건립되었을 가능

31) …爾時世尊即現神足 神足力故令此大地六種震動 於大講堂衆會之中 有七寶
塔從地踊出 衆寶羅網彌覆其上…佛言 善女天 我本修行菩薩道時 我身舍利
安止是塔 因由是身令我早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爾時佛告尊者阿難 汝可開
塔取中舍利示此大衆 是舍利者 乃是無量六波羅蜜功德所薰 爾時阿難聞佛教
敕即往塔所 禮拜供養開其塔戶 見其塔中有七寶函 以手開函見其舍利色妙紅
白…(『合部金光明經』 卷第八, 捨身品 第二十二(大正藏 권 16, 397a)).

32) …是時王子摩訶薩埵 臨捨命時作是誓願 願我舍利 於未來世過算數劫 常爲
衆生而作佛事…(『合部金光明經』 卷第八, 捨身品 第二十二(大正藏 권 16,
399c)).

성이 크다. 우선 사리의 유무와 관련하여 기존에 사리가 봉안되지 않은 탑이라는 견해와 달리 최근 석가탑에서 발견된 중수문서의 분석을 통해 사리봉안 사실이 밝혀졌다.³³⁾ 그리고 다보탑의 지닌 이형탑(異形塔)으로서의 조형미는 마하살타의 사리를 봉안한 칠보탑(七寶塔)이라는 성격에 부합하는 조형이다. 특히 다보탑의 조형 가



그림 6. 다보탑의 죽절형 석주

운데 앙련대(仰蓮臺)를 떠받고 있는 대나무 형태의 독특한 석주(石柱)는 마하살타 전기가 전개되는 배경이자 칠보탑이 세워진 죽림(竹林)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그림 6]

… 그 때 대왕 마하라타와 그 왕비는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다 모두 몸에 걸친 어의와 영락을 벗고 모든 대중들과 대숲 속으로 가서 그 숭리를 거두어 곧 그 자리에 칠보탑을 세웠다.…³⁴⁾

33) 한정호,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와 小倉 컬렉션 傳 경주남산출토 사리장엄구」, 『미술사논단』 27, 2008.

34) …爾時大王摩訶羅陀 及其妃后悲號涕泣 悉皆脫身御服瓔珞 與諸大眾往竹林中收其舍利 卽於此處起七寶塔…(『合部金光明經』 卷第八, 捨身品 第二十二 (大正藏 권 16, 399c)).

V. 쌍탑가람 출현기 佛身觀의 변화가 반영된 신라 불교미술

쌍탑가람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7세기 후반의 불교미술품 가운데 그 이전시기와 비교하여 불신관(佛身觀)의 변화가 간취되는 사례로는 먼저 경주 석장사지(錫杖寺址)에서 출토된 탑상문전을 거론할 수 있다.[그림 7] 석장사는 사천왕



그림 7. 석장사지 탑상문전

사 쌍탑의 녹유신장상을 조각했던 양지스님이 주석했던 사찰이다. 석장사지에서 출토된 탑상문전은 양지스님이 ‘일찍이 벽돌을 새겨서 작은 탑 하나를 만들고, 아울러 삼천불(三千佛)을 만들어 그 탑에 봉안하여 절 안에 모셔 두고 공경했다.’³⁵⁾라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묘사된 전탑의 부재로 추정되고 있다.

석장사지에서 출토된 탑상문전에는 탑과 불상이 번갈아가며 새긴 다불(多佛)과 다탑(多塔)이 표현되어 있다. 천불 또는 삼천불과 같은 다불(多佛)에 대한 신앙과 조상의 사례는 고구려 연가7년명 불상을 통해 삼국시대에도 확인되지만 다탑(多塔)의 조성사례는 석장사지 탑상문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탑상문전에 새겨진 불상의 면면을 살펴보면 향마촉지인, 선정인, 설법인 등 그 이전시대에 보이지 않던 다양한 수인을 취한 불상들이 등장하여 변화된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5) …又嘗彫磚造一小塔 竝造三千佛 安其塔置於寺中 致敬焉…(『三國遺事』 권 4, 良志使錫조).

그리고 가람배치의 큰 변화는 쌍탑가람 출현 이후 일탑삼금당식(一塔三金堂式) 가람배치형식이 소멸되는 현상을 주목할 수 있다. 삼국시대 신라의 가람배치 형식은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황룡사와 분황사의 배치형식이 발굴조사를 통해 고구려 가람배치의 영향을 받은 일탑삼금당형식이라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더불어 신라 최초의 가람인 흥륜사의 가람배치 역시 일탑삼금당형식으로 추정되고 있어 삼국시대 신라 가람배치의 대세는 일탑삼금당식 가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³⁶⁾

일탑삼금당식 가람에서 좌우 금당에 어떠한 조상이 봉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쌍탑가람 출현 이후 그 이전에 유행했던 가람배치형식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기존 좌우 금당의 개념이 쌍탑으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곧 불탑이 ‘여래(如來)의 묘처(墓處)’라는 과거의 의식에서 ‘여래의 주처(住處)’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불탑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묘처라는 관념에서 주처의 관념으로 점차 의식이 전환되었을 가능성은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제작한 사리기의 형식변화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삼국시대의 탑에서 발견되는 사리기의 형태는 대부분 상자나 항아리 또는 함(盒) 형태로 사리를 보관하는 용기(容器)로서의 기능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신라에 쌍탑이 출현하는 7세기 후반에 이르러 형식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바로 송림사 전탑과 감은사지 쌍탑 사리기로 대표되는 불전형사리기(佛殿形舍利器)이다.[그림 8] 이러한 형식의 사리기는 흔히 전각형(殿閣形), 또는 보장형(寶帳形)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형식적으로 유사한 일본 호류지의 옥충주자와 橘夫人廚子を 일본의 고대 기록에서 ‘궁전상(宮殿像)’이라 기록한 것으

36) 김창호, 「신라 흥륜사의 가람배치 문제」, 『신라문화』 20, 2002, 141~143쪽.

로 미루어 건축적인 의미가 반영된 기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³⁷⁾ 7세기 후반에 출현한 불전형사리기는 불국사 석가탑 사리기와 전 남원출토 사리기 등 8세기 대의 사리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작된다.

이와 같은 불전형사리기에 대한 한 가지 흥미 있는 기록은 최근 공개된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에 불국사 석가탑 금동사리외함을 ‘銅鍍金金堂一座’라고 지칭했다는 사실이다.³⁸⁾[그림 9]

불전형사리기에 대해 금당(金堂)이라고 지칭한 것은 비록 11세기 초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신라의 탑과 사리기의 상징체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다시 말해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사리기에 금당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은 불탑에 부처의 묘처만이 아니라 주처로서의 개념이 추가되었음을 반증한다.

쌍탑과 관련된 불신관의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감



그림 8. 감은사지 동탑사리기



그림 9. 석가탑 금동사리외함

37) 호류지에 전하는 天平 19년(747)의 『法隆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에 호류지의 두 주자에 대해 ‘宮殿像貳具中 一具金泥押出千佛像’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38) 한정호, 「고려 정종 4년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와 석가탑 사리장엄구」, 『신라문화』 32, 2008, 95쪽.

은사지 쌍탑에서 발견된 사리기이다. 이 가운데 동탑에서 발견된 사리기의 불전부(佛殿部)는 중앙에 놓인 보탑형사리기를 중심으로 사방에 사천왕상과 승상을 배치하여 고대 불전의 내부의 모습을 보여준다.[그림 10] 서탑에서 발견된 사리기와 비교해보면 그 형식은 같지만 [표 1]에서 보듯이 불전부에 배치된 도상과 분위기는 서로 달라 두 탑에 서로 다른 불신관(佛身觀)이 반영되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림 11]



그림 10. 감은사지 동탑 사리기 세부



그림 11. 감은사지 서탑 사리기 세부

[표 1] 감은사지 동탑과 서탑 사리구 도상비교

구 분		동탑 사리구	서탑 사리구
내 합	천개 모서리	龍	鳳凰
	천개 사면	化佛	鬼面
	불전 중앙	僧像	玉製舞童像
	불전 난간	西向 門扉	東向 門扉(?)
	불전 모서리	四天王像	奏樂天人像
	기단 하단	獅子像	線刻雙鳥紋

감은사지 쌍탑에서 발견된 사리기는 발생 초기 쌍탑가람에서 발견된 사리기이자 도상이 풍부한 사리기라는 점에서 쌍탑 출현의 신앙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동탑 사리기의 도상배치는 『금광명경』의 「사신품」의 내용과 연관되는 요소가 간취된다. 하지만 사리기 자체에 복원 과정에서의 오류가 확인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서탑 사리기의 문비(門扉) 유무 등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자료의 검증을 통해 별도의 지면을 기약하고자 한다.

불탑에 대한 관념의 변화는 7세기 후반 경주 남산 탑곡 마애조상군의 마애탑의 조각들 통해서도 확인된다. 탑곡 마애조상군은 일제강점기 때 ‘神印寺’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어 명랑법사가 개창한 신인종과 관련된 사찰로 추정되고 있다.³⁹⁾ 탑곡 마애조상군의 북면에는 중앙의 여래상을 중심으



그림 12. 경주 남산 탑곡 마애탑

로 좌우에 7층과 9층의 목탑이 조각되어 있다.[그림 12] 마애탑이 조각된 원인은 단순하게 장엄적 성격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자면 불탑은 그 형상에 신앙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봉안된 사리가 근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탑곡 마애조상군에 거대한 마애탑이 조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불탑이 여래의 주처(住處)라는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 있는 대목은 탑곡 마애조상군 북면 조각의 전체 구성은 탑 속에 불상이 조각되지 않는지만 앞서 살펴본 옥충주자 영축산정토도의 구성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그 교리적 전거를 엿볼 수 있다.

39) 황수영·김길웅, 『경주 남산 탑곡의 사방불암』, 통도사성보박물관, 1990.

끝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신라 쌍탑가람의 금당에 봉안되었던 불상의 도상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쌍탑가람의 본존이 확인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단정할 수 없지만 항마촉지인과 지권인을 결한 불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항마촉지인을 취한 불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금광명경』의 삼신불관(三身觀)에 바탕을 두었던 쌍탑가람이 화엄불교의 유입에 따라 점차 화엄의 삼신으로 변화 또는 융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2] 신라 쌍탑가람과 불상

사찰명	본존불 도상	조성시기
경주 석굴암	항마촉지인상	8세기
김천 갈항사지	항마촉지인상	758년
울주 간월사지	항마촉지인상	8세기
장흥 보림사	지권인상	858년
경주 숭복사지	노사니불	9세기
청암사 수도암	지권인상	9세기

VI. 맺음말

형식의 변화는 의식의 변화를 반증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의 출현은 당연히 동시기 신앙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쌍탑가람의 신앙적 배경으로 7세기 중엽이후 신라 호국불교의 소의경전으로 채택되었던 『합부금광명경』을 주목하였다. 『합부금광명경』이 신라에서 유행한 시기는 쌍탑가람 성립기와 맞물리는 경전일 뿐만 아니라 경전에 수록된 「三身分別品」과 「捨身品」을 통해 쌍탑 건립의

교리적 근거를 얻을 수 있었다.

신라의 쌍탑가람이 三身の 상징체로 건립되었을 가능성은 쌍탑가람의 출현과 맞물려 신라 왕실사찰의 가람배치 형식이었던 일탑삼금당가람이 소멸되는 현상을 주목할 수 있다. 아울러 사리기의 형식변화와 마애탑의 출현 등 불탑이 여래의 묘처라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점차 여래의 주처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사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신라 쌍탑가람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명랑법사의 중국 유학 경력과 『역대명화기』의 쌍탑가람에 대한 기록으로 볼 때 쌍탑가람은 신라 자체에서 발생했다기보다는 유행에 차이는 있지만 동아시아불교 건축의 공통된 형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중국 쌍탑가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고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남겨진 과제라 하겠다.

이 논문은 2010년 1월 31일에 투고 되어,
2010년 2월 9일부터 2월 24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0년 2월 2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合部金光明經』

고유섭, 『朝鮮塔婆의 研究』, 을유문화사, 1946.

강순형, 「感恩寺址塔內 舍利器 奏樂·舞童像考」, 『고고미술』 178, 1978.

강우방, 「新良志論」, 『미술자료』 47, 1991.

곽경순, 「신라 사천왕사 쌍탑에 관한 연구」, 『경주사학』 23, 2004.

김복순, 「신라 왕경 사찰의 분포와 체계」, 『신라왕경의 구조와 체계』,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6.

김상태·박언곤, 「7·8세기 동아시아 2탑식가람의 생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2권, 2003.

김상태, 「신라시대 가람의 구성원리와 밀교적 상관관계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04.

_____, 「감은사의 사리장엄에 의한 2탑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6권, 2007.

김연수, 「韓國 舍利器에서의 ‘寶帳’ 형식에 대한 考察」, 『미술자료』 65, 2000.

김창호, 「신라 흥륜사의 가람배치 문제」, 『신라문화』 20, 2002.

문명대, 「新羅 神印宗의 研究」, 『진단학보』 41, 1976.

박홍국, 「瓦塼資料를 통한 靈廟寺址와 興輪寺址의 位置 比定」, 『신라문화』 20, 2002.

신창수, 「흥륜사의 발굴성과 검토」, 『신라문화』 20, 2002.

이근직, 「신라 흥륜사 위치관련 기사 검토」, 『신라문화』 20, 2002.

- 인권환, 「心火遶塔 說話攷」, 『국어국문학』 41, 1968.
- 장충식, 「신라 낭산유적의 제문제」, 『신라와 낭산』,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96.
- 한정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의 편년 재검토」, 『불교미술사학』 3, 통도사정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2005.
- 한정희, 「한국 고대쌍탑의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64.
- 樺本杜人, 「日鮮上代寺院の舍利莊嚴具について」, 『佛敎藝術』 33, 1958.
- 杉山信三, 『朝鮮の石塔』, 彰國社, 1944.
- 松浦正昭, 『日本の佛敎美術4-飛鳥白鳳の佛像』, 至文堂, 2004.

Abstract

The appearance of the Site layout the temples with twin pagoda in Silla and The background of faith

Han, Joung-Ho

It is the very enormous changes that the Buddhist temple with twin pagoda appear in Buddhist architecture, Silla.

We have studied that the background of this based 'GyeonBotop section(見寶塔品)' of *Saddharmapu ar ka-sūtra*(法華經), until. But not sure.

Recently, Sukga pagoda and Bulguk pagoda, twin pagoda in Bulguk temple, to has supported this thesis turned out to be not the name of them founded at first time through the record on the repairing them.

Because the change of form is a reflection of the awareness changed, new form of the Buddhist temple with twin pagoda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hange of Buddhist faith, in the late 7th century, Silla.

The appearance of Buddhist temple with twin pagoda, in Silla, has relation to Myeongnang Buddhist monk played an essential role in the founding of Sachunwang temple and Yangji taken the lead the new style of Buddhist Art.

Especially, faith of Mueongnang, turned out the founding of Geungwang temple and Sachunwang temple is based on *Suvar aprabh suttamar ja-sūtra*(合部金光明經) this Sūtra led the Buddhism or defence of fatherland-religion since the mid-7th century in Silla and same time as The appearance of Buddhist temple with twin pagoda. it has relation to the 'Samsimbunbyel section(三身分別品)' and the 'Sasin section(捨身品)' of *Suvar aprabh suttamar ja-sūtra*(合部金光明經) the main hall of it and twin pagoda are able to have architectures symboliaing three body(Samsin, 三身) said on it.

For example, YoungChuk Mt.'s Paradise painting Painted on Okchung-Juja(玉虫廚子) at Horyuji temple(法隆寺) in Japan, the mid-7th century, is to express Buddhist temple with twin pagoda by paintings to based on the Samsimbunbyel section(三身分別品) of *Suvar aprabh suttamar ja-sūtra*(合部金光明經). and Single Pagoda-Tree image Halls, the main of Buddhist temple form in Silla, dissipated with the appearance of this. also, though the change of Sarira Reliquary form we guess that the meaning of Buddhist Pagoda change from the grave of Buddha to the house of Buddha.

Key Words : twin pagoda(雙塔), the Site layout the temples(伽藍配置), Sachunwang temple(四天王寺), Youngmyo temple(靈廟寺), *Suvar aprabh suttamar ja-sūtra*(金光明經)